



보름달 같은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열린 포항

www.ipohang.org



굳은살

벼를 말리고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머니는 제 몸의 습기를 말리고 있는 것일까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벼톨이 잘도 새어 나가는 것이었다
 몰랑몰랑한 내 맨발은 벼를 밀며 나아가지 못하고
 몸에서 질퍽거리는 물소리만 들리고
 딱딱한 어머니의 굳은살은
 말라서 바스락거리는, 벼톨이 둥글게 밀어내었던 것
 축축했던 무늬이 제 몸을 짹짹 갈라내어
 벼이삭들 몸부벼 열매 맺게 하듯
 굳은살과 쌀이 서로 몸부비는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었다
 딱딱한 아스팔트 위, 맨살 섞은 사랑이
 강과 산맥들 길쭉하게도 빚어 놓았다
 가을 햇살 받은 강물조차
 제 몸의 습기를 서서히 빼어 버리고
 흰 찌로 돌아가는 산맥들 할갑게 휘돌아 나가고 있었다

손창기 시인

1967년 군위출생. 2003년 「현대시학」 신인상으로 등단. 「푸른시」동인회
 「포항문학」회원. 시집 「달팽이 꾀죽」 현 대동고등학교 교사.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04



» 08



» 10



» 17



» 18

2009 9 CONTENTS

- 04 특집 | 이명박 대통령 고향 방문
- 08 New Start 2009 | 제2새마을운동 개막
- 10 기획 | 포항의 한가위
- 12 포항칼럼 | 제3의 인생을 위하여
- 14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⑦ 산이와 단이의 사랑이야기
- 16 문화마당 | 행사, 단신
- 17 글로벌 포항 | 환동해거점도시회의
- 18 포커스 | 신종플루를 극복하자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이명박 대통령이 영일만항 개장식에 참석해 손을 흔들어 인사 하고 있다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9월 25일 (통권 74호)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항은 환동해시대의 중심이 될 것”

● ●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포항을 방문했다. 포항의 성장 동력이 될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개장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솔직히 여러분이 보고 싶어 왔다” 며 고향 방문에 대한 벅찬 심경을 밝히면서 “포항은 이제 환동해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 며 축하와 함께 고향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 ● ●

고향방문에 대한 벅찬 심경 드러내

포항의 성장동력이 될 영일만항 개장식이 9월 18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승호 포항시장, 선사·화주 관계자, 시민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포항시의 역사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사이고, 포항시민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며 고향에 대한 긍지와 함께 “포항이 제철산업으로 제1의 도약을 했다면 이제 영일만항을 통해 제2의 도약을 맞게 됐다”는 말로 고향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또 “포항은 이제 영일만항 개장으로 환동해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 며 “항만은 화물만 싣고 내보내는 곳이 아니라 인재와 서비스가 오가는 곳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① 영일만항 개장식 하역시범

② 영일만항 개장을 축하하는 이명박 대통령 치사



- 1 모교 초등학교 후배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2 이명박 대통령 "사랑합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 3 이명박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이 대통령 환영인파로 시내 전체가 북새통

이 대통령은 개장식에 이어 어린 시절 좌판의 추억이 남아있는 죽도시장을 찾았다. 시내 일원은 온통 이 대통령의 고향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으로 장식되었고 대통령 일행이 지나는 연도에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연호하며 열렬한 환영을 보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탑승한 버스에서 내려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연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마크를 만들며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에 화답했다.

이 대통령이 죽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환영 인파와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시민들은 물론 모교 초등학교생들까지 환영행렬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대통령 선배님 사랑합니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자신을 환영하는 57년 어린 후배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이들에게 대통령의 꿈을 심어줬다.

이 대통령도 시민들과 상인들의 손을 잡았고 고향의 뜨거운 환영에 고무된 표정이었다. 만찬장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 이어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지역 인사들과 물회 도시락으로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선물로 받

은 아이스크림 통을 메고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포항방문은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를 향하는 고향에 힘을 실어 주었고, 추석을 앞둔 고향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포항시도 영일만항 개장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영일만항 조기 활성화는 물론 포항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한 고향사랑

한편, 이 대통령은 고향방문 전인 9월 12일 흥해읍 덕실·덕장마을 주민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등도 참석한 이날 오찬에서 이 대통령의 고향에 관심과 사랑을 절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온 후 가장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됐다"며 "어제 밤 잠을 설쳐가며 기다렸다"며 고향사람들을 환영했다. 아울러 박승호 시장에게 "열심히 하라"며 고향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 4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이명박 대통령
- 5 환영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이명박 대통령



- 1 기계면 문성리 소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개관식
- 2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청동 좌상
- 3 3천여 명의 기관단체장과 새마을 지도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1 | 2 | 3

창의·녹색·통합의 새마을, 글로벌 포항 - 제2새마을운동의 닳을 올리다

포항이

새마을발상지기념관 개관에 맞춰 새로운 개념의 새마을운동, 이른바 제2새마을운동 추진을 선포했다. 포항시는 9월 17일 기계면 문성리 소재 새마을기념관에서 3천여 명의 기관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관 개관식과 함께 창의·녹색·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2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포항시가 제2새마을운동을 선포한 것은 이번 기념관 개관이 오늘날 시대적 과제인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 새마을운동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아울러 발상지로서의 시대적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8년 전인 1971년 9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무위원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을 데리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를 찾았다. 박 대통령은 현재 방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브론즈 상(像)이 자리한 곳에서 “전국 시장 군수는 문성리와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때부터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는 그때까지 뚜렷한 실체가 없었던 새마을운동이 문성리가 그 대표적 모델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성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상지(發祥地)란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처음 나타난 곳'을 일컫는다.

발상지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누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추진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포항시는 앞으로 문성리가 가진 새마을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에다 포항을 새마을운동의 대표적 계승지로, 생활화된 문화지로, 글로벌 모범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새마을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삼았다면 제2새마을운동은 오늘날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선진화를 목표로, 근면을 넘어 창의, 자조를 넘어 녹색성장을, 협동을 넘어 통합을 기본정신으로 하겠다는 것.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제2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태동시켰던 문성리를 '녹색선진마을' 1호로 지정하여, 녹색성장 관련 사업과 연계해 21세기가 지향하는 글로벌 마을로 조성하여 제2새마을운동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이 지구촌의 가난을 극복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는 '새마을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등 포항을 새마을운동의 산교육장으로, 문화축제로, 나아가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제2 새마을운동 개막 선언문

형산강의 유구한 역사와 영일만의 빛과 정기를 가득 품은 포항은 새마을운동을 일으켜 민족의 가난과 절망을 번영과 희망으로 바꾼, 대한민국 근대사의 정신적 물질적 기반을 창조한 신화의 도시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문성리 방문 38주년을 맞아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을 개관하는 2009년 9월 17일 오늘, 포항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이를 계승 발전시킨, 저탄소 녹색성장과 선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포항은 앞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정신적 기반이 될 선진시민의식운동과 창의 녹색 통합의 선진녹색마을운동, 나아가 새마을운동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제2새마을운동을 선대들이 물려준 굳은 의지와 도전정신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선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 ● ● 더위가 물러가고 서늘한 기운이 밀려들고 있다. 최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간 떨어져 지냈던 일가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넉넉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 추석이다. 예로부터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추석에는 떡을 빻어 나눠 먹었다고 해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그 넉넉함을 찾아 사람들은 민족 대이동을 방불케 하는 고행의 귀향길도 마다하지 않는 모양이다 ● ● ●



나눔과 배려가 무르익는 추석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종플루로 인해 이번 추석은 어느 해보다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서민과 어려운 이웃의 추석맛이가 걱정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절실하다. 시민 모두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 같은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넉넉함을 가졌으면 한다.

죽도시장 등 재래시장에는 제수용품을 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 포항시는 '추석맛이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가격과 인심 좋은 전통시장을 외지인과 시민들이 많이 찾아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 모두 보다 나은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직 우리 명절 문화에 낯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리기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송편 만들기는 물론 전, 삼색나물, 산적, 탕국 등의 조리방법과 조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도와 절차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일반인들조차 그때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차례상 차리기 등을 알아본다.

추석 차례상 차리는 법

먼저 차례상 준비 시 유의점이 있다. 복숭아와 삼치, 갈치, 콩치 등 끝에 '치'자가 들어가는 것은 차례상에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고춧가루와 마늘양념은 하지 않는다. 국물 있는 음식은 건지만 쓰고 붉은 팔은 안 쓰고 흰 고물을 쓴다. 차례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린다.

- 1열 : 시접(숟가락 담는 대접), 잔반(술잔, 받침대)을 놓고 메를 올림
- 2열 :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 육류는 서쪽에 놓음
두동미서(頭東尾西) - 생선의 머리는 오른쪽을 향하게 함
- 3열 : 고기탕, 생선탕, 두부탕 등의 탕류를 놓음
- 4열 : 좌포우혜(左鮑右醢) - 왼쪽에 포, 오른쪽에 식혜를 놓음
- 5열 : 조율이시(棗栗梨) - 왼쪽부터 대추, 배 등의 과일과 약과, 강정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과일은 오른쪽, 흰 과일은 왼쪽

추석 차례 지내는 절차

1. 분향재배(焚香再拜) 제주는 꿇어 앉아 향을 피우고 두 번 절한다.
2. 강신재배(降神再拜) 왼쪽 집사가 제주에게 강신 잔을 주면 오른쪽 집사가 술을 따른다. 제주는 모사 그릇에 세 번에 나누어 모두 따르고 잔을 제자리에 놓은 후 재배한다.
3. 참신(參神) 제주와 참석자 모두 재배한다.
4. 진찬(進饌) 주부(집안 어른)가 송편, 혹은 메(밥)를 제상에 올린다.
5. 헌다(獻茶) 왼쪽 집사로부터 잔을, 오른쪽 집사로부터 술(또는 茶)을 받아 올린다.
6. 개빈(開飮) 집사가 떡국 그릇의 뚜껑을 열고 적을 올린다.
7. 삼시(掃匙) 집사가 시접에 담겨있는 숟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은 시접 위에 가지런히 걸쳐 놓는다. 젓가락의 손잡이가 왼쪽을 보게 놓는다.
8. 사신(辭神) 모든 참석자는 조상이 진지를 드는 동안 조용히 서서 생전의 조상을 생각한다. 주부가 약한 기침을 하면 숟가락을 거두어 그릇에 담그고 젓가락은 시접아래 내려놓고 모두가 재배한다. 신위는 제자리에 모시고 지방인 경우에는 향로 위에서 태운다.
9. 음복(飮福) 제물을 제상에서 거두고 옷을 입은 그대로 조상이 드시고 남은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차례는 끝난다.

① 추석 차례상 올바르게 차리는 법 (각 지방이나 가정의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이라고 하면 법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지만 80세를 전후한 노인들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다. 1945년 해방 전에는 일제가 國體明徵(국체명징), 內鮮一體(내선일체), 忍苦鍛鍊(인고단련)이라는 3대 강령을 내세워 전쟁터로 몰아넣었고,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하였다. 특히 산천을 해매며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등 먹지도 입지도 못했다. 해방 후에는 좌우익으로 갈라져 치절하게 싸웠고 6·25라는 동족상잔을 겪는 등 이념적 충돌과 폐허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했다. 줄지에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한 실항민들은 전국의 산천을 해매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고, 통일의 그날이 오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쓰러질 수 없었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오직 잘살아보자는 일념으로 가난의 설움과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밤낮을 가리지않고 일만 했다. 우리는 피땀으로 우리 민족의 오천년 숙원이었던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을 이루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재의 노인들이다.

흔히들 은퇴 이후의 삶을 '제3의 인생'이라 부른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제3의 인생을 보람 있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첫째 퇴직 연령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날 필자가 근무한 회사의 정년퇴직은 65세였다. 지금에 비해서는 그래도 10년 정도는 길었다. 평균연령이 5~10년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퇴직연령이 빨라지는 것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 물론 사회적 여건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퇴직연령이 빠르면 50대, 늦어도 60대 초반으로 보았을 때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한다는 사실은 분명 아쉬운 일이다.

퇴직 후 제3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25세까지 학문을 익혀야 하

고, 군복무와 사회경험을 5년을 보면 30세가 되어야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직장에 들어와 인격과 능력을 갖고 일하는 기간은 대개 25~30년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연령을 75~80세로 본다면 유효한 삶의 기간은 인생의 절반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둘째는 어떤 직종이던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봉사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노화를 방지하는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취미를 가지고 친한 벗을 사귀어야 한다. 조용한 곳에서 붓을 잡고 마음을 정리하는 서예를 즐기는 등 문학적 예술적 감각을 살리는 취미생활은 물론 벗들과 함께 유머를 나누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과 노래를 즐겨야 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두드리면 열리듯 자신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보람과 긍지도 있을 것이다.

진정 인생의 진가를 발휘하는 기간은 퇴직 후일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한다. 50~60을 인생의 꽃이라면 꽃봉오리는 70~80이고, 한창 일 할 나이인 90이 되어 저승사자가 오면 100까지 기다리라고 돌려보낸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도 평균연령이 늘어나면 과거 나이에 0.7을 곱한 나이가 현재의 나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나이를 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건강 연령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난날 모 정유회사 공장장 재직 시 기술상담 차 일본 대협(大協)석유회사를 방문했을 때 전 임 공장장의 안부를 물었는데 은퇴 후 다른 방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상담을 마치고 인사차 찾았는데 2~3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에 돋보기로 도면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은퇴 후 회사에서 방을 마련해줘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얼마 전까지 넓은 방에서 수 천명을 데리고 화려하게 일했던 사람이 자신과 후진을 위해 소박하게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퇴직 후에 무의도식하면 국가도 자신도 손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오래 몸담았던 직장에서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

일을 그만두면 2~3년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제3의 인생을 멋있고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삶의 의욕을 높여야 한다.

99,88,12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제3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99.88.12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1~2시간만에 죽는 것.



제3의 인생은 내가 만든다

김 병 관 대한노인회 포항시지부장

재단법인 향산장학회 설립 및 재단이사장
학교법인 향산학원 설립 및 초대이사장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 역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의장 역임

기계면

지가리 월리 마을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큰 솔숲이 있고 그 곁에는 맑은 개울이 흘렀어요. 지나는 길손들이 쉬어가기 안성맞춤인 자리에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딸 단이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할멈! 단이는 볼 때마다 예쁘지네. 우리 며느리하면 좋겠소.”

방물장수가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단이는 볼 때마다 귀여워해주는 방물장수 노인이 좋았어요.

“이 촌구석에서 예쁜들 얼마나 예쁘겠소.”

단이와는 달리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받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얼굴뿐만 아니고 속도 꼭 영근 표가 난다오.”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속이 영글지. 보는 거라고는 솔숲이고, 듣는 거라고는 개울물소리 뿐인데.”

그 말이 맞아요. 솔숲과 개울이 단이를 맑고 밝게 키워주지요. 단이는 솔숲을 지나는 바람처럼 푸릇푸릇하게, 계곡을 지나온 시내처럼 초롱초롱하게 자랐어요.

단이가 어느새 처녀티가 나자 이 마을 저 마을 총각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파들이 들락날락 줄을 이었지요. 그래도 단이 마음은 아니, 아니 도리질만 쳤어요.

“어머니! 방물장수 할아버지가 한참동안 오지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노인네가 병이 났나?”

웬지 흰 머리카락이 성성한 방물장수 노인이 자꾸만 기다려졌어요.

‘정말로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을까? 나를 며느리로 하자는 게 참말일까?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릴 때 우스개로 들은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 어스름에 한 젊은이가 주막을 찾아들었어요.

“어, 어서 오세요.”

산이와 단이의 사랑이야기

●●● 기계면 지가2리 월리 마을에는 독마(獨馬)라는 큰 솔숲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마침 방에서 나오던 단이는 그 젊은이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웬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

“예, 안에 계세요.”

젊은이는 단이 앞을 지나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이는 다짜고짜 할머니 앞에 넘어져 엎드려 큰절을 올렸어요.

“아니, 젊은이는 누구신지?”

깜짝 놀란 할머니는 빙긋이 웃고 있는 젊은이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은 바로 마음씨 좋던 방물장수 노인이었어요.

“아니 그럼, 그 방물장수 노인의 ……?”

“예, 할머니. 제가 바로 그 아들 ‘산’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아뵙고 꼭 절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들릴 때마다 신세를 많이 입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예, 병을 얻으셔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제게 외상값을 갚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늙름도 하지, 늙름도 하지.”

할머니는 산이의 등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멀리 떠나보냈던 아들이 찾아온 것만 같았지요.

산은 곁에 선 단이를 그제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예쁜 처녀가 앞에 있었어요. 눈을 땄수가 없었지요.

산이와 단이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내 빨리 돌아오리다. 아버지도 모시고 와서 우리 오순도순 함께 삽시다.”

“기다릴게요. 꼭 기다릴게요.”

단이는 고개 마루까지 따라나서며 산이를 떠나보냈어요. 손을 놓기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시간은 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고개를 넘어간 산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 산단 말ियो. 어디 산단 말ियो.”

단이는 뒤늦게 산이가 사는 곳을 알아놓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찾아 나설 수도 없었어요. 꿈쩍없이 동동거리며 기다리는 길밖에 없었어요.

산이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이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간호를 하고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말을 끌어안고 울다가 지친 할머니도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장사를 치르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산이 말을 달려 고개를 넘어왔어요. 주막으로 달려갔으나 단이는 없었어요. 빈집에는 찬 기운만이 남아서 산이를 맞았어요.

마을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은 산은 단이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조금 더 기다리지. 조금 더 기다리지.”

산이는 가슴을 쳤어요.

산이가 단이를 떠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 병은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별떡 일어나야 함께 단이에게 달려갈 수가 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 병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산이의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산이의 정성이 모자란 탓이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사를 치르고 삼년 시묘살이까지 마친 산은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단이에게 달려갔답니다.

밤이 되자 멀리서 말울음소리가 났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무덤을 찾아 갔어요. 그런데 멀리 무덤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단이와 산이가 말을 타고 하늘로 둥실둥실 날아올라가고 있었대요.



[행사]

[단신]

사진은 연극 「연오랑세오녀」



환동해 공동번영 위한 실질 방안 마련

»» 2009원복작가 초청 강연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9월 26일 14:00
- 장 소 : 시청 문화복지동 대강당
- 오프행사 : 그림자극 "엄마 까투리의 사랑" 송림극단
- 시 상 : 원복독후감 시상, 다독자, 모범이용자, 특별상 등
- 원복낭독 : 시장님
- 작가강연 : 신경숙

»» 주민을 위한 야외음악회

-용흥동, 운흥사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0월 9일 20:00
- 장 소 : S
- 프로그램 : 가을 가곡 모음, 민요 모음

»» 중유럽의 가을

-시립교향악단 제99회 정기연주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0월 15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해설이 있는 피아노 독주회

-상설 브런치 차랑이 있는 작은 음악회

- 주최주관 : 포항시
- 일 시 : 10월 15일 19: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 출 연 진 : 피아니스트 구정희

»» 포항소재문학공모 당선작 발표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문인협회가 주관한 '포항소재문학공모' 결과 김영애(경북 포항)씨의 소설 '내연산, 가을을 지나다'가 대상에 당선되었다. 김 씨의 소설은 포항 청하 현감을 지낸 겸재 정선의 사랑이야기이다. 내연산과 12폭포와 진경산수가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글이다. 포항소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포항의 진면목을 드러낸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소설 48편, 수필 109편, 시 311편이 응모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시상식은 10월 9일 오후7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 응모의 시 부문 심사위원이기도 한 안도현 시인의 문학강연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기타안내 : 전용홈페이지 <http://lovepohang.net>] (당선자 명단) <최우수상> 조명숙(경기 화성) 시 「송도」, 강길수(경북 포항) 수필 「인생 자전거」, 송정진(경기 고양) 소설 「포항」 <우수상> 장명옥(경북 포항) 시 「송도를 말한다」, 정재권(서울 종로) 시 「암각화」, 김은화(충북 청주) 수필 「박스로 남은 남자」, 조현태(경북 경주) 수필 「시금장」, 서보림(경북 포항) 소설 「봄 살」, 강춘홍(경남 울산) 소설 「승어」

»» 제8회 일월문화제 신종플루로 취소

포항시는 10월 8일 개최예정이었던 제8회 일월문화제를 취소했다. 시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 대유행이 예상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포항시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8회 일월문화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와 제1회 풍물경연대회 등 문화제 행사도 취소하고 매년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행사를 취소하도록 행사주관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 김종근 화백 「불과 소나무」 기획전

한국 현대회화사의 거장인 김종근 화백의 「불과 소나무」 기획전시전이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포항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시발전의 상징 중 하나인 포스코 건설의 이미지를 '불꽃'으로 형상화하고 60년 포항 시사(市史)의 굳건한 역사성을 시목(市木)인 소나무(해송)로 그려낸 원로작가 김종근 화백을 초청하여 열게 됐다. 김종근 화백은 국내 현대미술(모더니즘 미술) 정착기에 토속성이 짙은 '한국적 모더니즘' 회화를 토착화한 국내 몇몇 거장들 중 한 명이다.

포항시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중·일·러 4개국 11개 도시가 참가하고 있는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를 개최했다. 시승격 60주년과 영일만항 개항에 맞물려 열린 이번 회의는 환동해권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는가 하면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도약이라는 포항의 글로벌 비전을 대내외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선언문」 비망록 서명

한국·일본·중국 등 거점도시에 국제정기 항로 및 항공로 개설이 추진되는 등 적극적인 교류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카이미나토·요나고·돗토리시와 중국 훈춘·연길·도문시, 한국 속초·동해·포항시 등 3개국 9개 도시는 8월 19일 포항에서 열린 제1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항선언문」에 서명했다. 물류·에너지 복합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환동해 지역의 국제정기항로 및 항공로 개설과 연계망 구축을 통해 회원도시간 물동량 교류에 합의했다. 또 회원 도시간 크루즈 관광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환동해 지역 발전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회원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회의를 공식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을 재정하고 공식화장과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상임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상임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실무회의를 두기로 했다.

회원도시들, 포항의 첨단 인프라와 잠재력에 감탄 연발

회원도시들은 회의기간 중 포스코와 포항지능로봇연구센터, 방사광가속기연구소, 영일만항 등을 둘러보며 환동해 중심지로 부상하는 포항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한 중앙상가 실개천,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포항 조개구이는 포항의 명물로 인기를 모았다. 특히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도시 대표들은 중앙상가 실개천에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했다.

1 환동해권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중 일 러 4개국 11개 도시가 회의에 참가했다

2 회원도시 대표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중앙상가 실개천을 돌아보고 있다



신종플루를 극복하자!

●●● 신종 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H1N1) virus에 의한 감염으로 37.8도 이상 열을 수반하면서 기침, 콧물·코막힘, 인후통 1가지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열성 호흡기증상으로 신종 전염병을 말한다 ●●●

포항시

가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플루를 극복하기 위해 TF팀을 운영하는가 하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신종플루 차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시는 최근 포항지역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긴급예비비 5억2000만원을 투입해 접종백신을 확보하는 등 각종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는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로 사회복지시설 57개소, 아동보육시설 446개소, 학교 및 유치원 378개소에 손소독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기로 했으며 본청 및 사업소, 구청, 각 읍면동 민원실에도 손소독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남·북구보건소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를 위해 학교, 군대 등 각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과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거점병원 관계자 및 포항시 의사회, 약사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해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신종플루에 취약한 고위험군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당뇨·신장병·심혈관질환 등 만성 질환자, 임산부, 59개월이하 영·유아

신종플루 예방수칙 함께 지켜주세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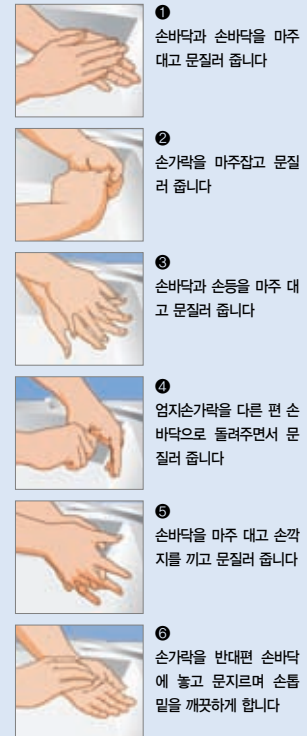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종플루 예방법의 올바른 손 씻기



- 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 ②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③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 ④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⑤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줍니다
- ⑥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민원 안내

- 급성열성호흡기 증상(37.8℃ 이상의 고열이 있으면서 기침, 콧물, 인후통 중 한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거점병원, 관내 병의원을 통한 거점약국에서 검사없이 무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입원환자는 고위험군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가 판단해 처방할 수 있다.
-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으면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대부분은 일반적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불필요하며 폐렴 등 중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다.
- 검사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자(병원에서 민간수탁기관에 의뢰검사), 그 외 검사는하지 않고 신종플루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처분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됨. (보건소는 검사없음, 단, 학교, 군부대, 복지시설 등 집단발생시 2~3 샘플 채취 검사함)

치료거점병원

포항성모병원	272-0151
포항세명기독병원	275-0005
포항의료원	247-0551
포항선린병원	245-5000

거점약국

효자한약국 (효자파출소 앞)	272-0573
온누리신그린 약국 (송도동사무소 앞)	244-2009
개풍약국 (죽도시장 입구)	247-9500
굿모닝 온누리약국 (북구 존메디컬병원 1층)	232-7572

포항시 남구보건소	270-4031~4
포항시 북구보건소	270-4131~4

기아차, 10월부터 러 수출 영일만항 이용한다



빠르면 9월말부터 기아자동차 러시아·동남아 수출 물량이 영일만항을 통해 나가게 됐다. 기아자동차가 영일만항을 이용함에 따라, 수도권 물동량 유치는 물론 이에 따른 영일만항 조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와 한국철도공사, 기아자동차는 9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최한주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 오태현 기아차 전무를 비롯해 권준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최준준 PICT 대표이사, 이상구 포항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자동차 및 코레일 측과 영일만항 이용 양해각서 및 철도운송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기아자동차는 10월부터 경기 화성공장에서 생산된 연간 4만TEU 정도의 러시아 및 동남아 수출 물량을 영일만항을 통해 처리하게 됐다. 또 코레일과도 MOU를 체결해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설될 때까지 경기·충북 등 수도권 영일만항 이용 물동량을 포함 과동역까지 철도로 수송한 뒤 과동역에서 영일만항까지 육로 셔틀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박승호 포항시장은 "항만운영의 기본 요소인 항만시설과 선사, 물동량에 운송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았다"며 코레일과의 철도운송 MOU 체결을 환영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코레일과 철도운송체계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거쳐 과동역을 이용한 영일만항 컨테이너 철도운송에 합의하고, 지난달 말 과동역내 2만㎡ 부지에 컨테이너 임시 하차장 사용을 위한 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포항경기 연초보다 “좋아졌다”

생산과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포항지역 경기가 연초보다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종 산업활동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침체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가 발표한 올 2/4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생산지수는 96.4(2005년 기준 100)로 1/4분기 보다 16.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하지수는 100으로 역시 전분기 대비 16.7%가 증가했으며 재고지수는 90.6으로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해 지역 경기가 연초에 비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1차 금속제조업, 정기간비 제조업 등이 생산지수 증가를 이끌었고, 기타 운송장비제조업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이 전분기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출하부문에서는 전기장비·펄프종이·트레일러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하락세를 유지했다. 재고부문에서는 비금속 광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이 호조세를 나타냈고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

포항테크노파크, 코스닥 상장 1호 기업 탄생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주)제넥신(대표 성영철)이 9월 1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다. 이번 제넥신의 코스닥 상장은 전국 17개 TP중에서 기업의 코스닥 상장으로는 최초이다. 제넥신 연구소 대다수가 포스텍에서 학위를 했거나,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학과 테크노파크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술 사업화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낸 포항TP-포스텍 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제넥신은 1999년 포스텍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가 창업한 기업으로 포스텍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항체융합단백질 치료제(슈퍼 바이오 시밀러) 제조를 위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다.

>>> (주)케이아이씨 포항 신공장 투자확대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주)케이아이씨가 9월 1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공장이전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케이아이씨는 박승호 포항시장과 최영만 포항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해외 협력사 및 포스코 등 국내 고객,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이전식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포항공장은 기존 포항철강공단내 공장과 울산은산공단내 공장을 통합한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영일만항 개항으로 이 공장에서 제작한 대형 구조물과 조선 기자재를 영일만항에 바로 선적할 수 있어 물류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때문. 여기에 포항시의 끈질긴 설득도 한 몫을 했다. 케이아이씨는 이번 포항공장 이전과 내년 6월 완공 예정인 포항 신항만공장 35,824㎡(11,000평)까지 가동돼 두 공장이 연계되면 플랜트 사업부문에서만 연매출액 3000억원, 고용인원 1,000여명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초단체로는 2번째 ‘산업 활동 동향’ 발표

포항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산업활동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시는 포항지역 경제단체들의 경제동향 조사가 제각각인데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기업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올해 특수시책으로 분기별로 산업 동향을 조사 발표하기로 하고, 첫 산업동향 조사보고서인 '2009년도 2/4분기 포항시 산업활동 동향'을 9월 13일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 종합개발계획 보고회 가져

포항시는 9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스텍과 RIST 등 지역 산·학·연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그린도시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회'를 가졌다.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집적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연구·산업화(R&DB)특구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문기업단지 조성하는 등 시는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데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소연료전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포스코연료전지공장이 있는 영일만항산업단지에 30만평 규모의 연구·산업·체험단지를, 포항테크노파크2단지내 경제자유구역 내에 수소·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와 수소시범타운을, 영일만항 산업단지와 포항블루밸리에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문단지를 각각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린도시 육성을 위해 환호해맞이공원과 해도근린공원 인근에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포항테크노파크2단지내 '국립탄소배출권거래소'와 '기후변화연구소'를 유치하고, 포스텍과 RIST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내 주요도로에 자전거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 풍력타워 업체 동국S&C와 MOU 체결

포항시와 (주)동국S&C가 9월 4일 대회의실에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법주 (주)동국S&C이사는 1단계 풍력 TOWER(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2단계 BLADE(풍력발전기 날개부분), 3단계 조선티블록 및 해상교량 생산시설 공장 착공 등에 관한 투자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해 발표했고, 이어 박승호 포항시장과 정학근 (주)동국S&C사장이 영일만 3산업단지내 307,600㎡에 대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용한2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식

포항시는 9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입주기업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에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알팩와 해동철강무역, 린도, 성진E&I 등 4개 업체이다. 알팩(주)는 압력·발전용기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5만 9,459㎡면적에 400억 원을 투자해 38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해동철강무역(주)는 현재 현대, 삼성, 대우 등 조선 3사의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3만9,550㎡규모에 100억 원을 투자해 335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린도는 축산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1만6,528㎡면적에 50억 원을 투자해 7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그리고 (주)성진 E&I는 포스코의 차세대 친환경핵심기술인 FINEX공법의 핵심설비 및 기계부품류 등 철강 및 선반부품 업체로 1만6,528㎡에 75억 원을 투자해 50명의 고용인원을 예상하고 있다.

>>> 포항시 살림 규모 1조원 ‘훌쩍’

포항시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가 2007년도에 이어 1조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지난 한해 포항시 살림살이 규모는 총 1조 1,68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493억 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약 6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또 중앙정부 재원인 교부세 및 보조금은 4,195억 원으로 전국 시 평균보다 1,110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돼 포항시의 중앙 예산 확보노력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 제6회 에너지의 날 행사 열려



포항시와 포항녹색소비자연대가 '제6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시장 앞 광장에서 지구온난화 체험,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체험마당을 운영했고, 저녁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노래자랑과 기념공연에 이어 동시 소동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포항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지난 6월 경북도내 최초로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및 기반을 구축했다.

>>> 포스코, 동빈내항 복원 기부금 100억원 전달

김진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이 9월 14일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 유원지 조성에 써달라며 100억원의 포스코 기부금 증서를 포항시에 전달했다. 이날 김 소장은 박승호 포항시장을 방문, 지난해 11월 기탁된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조성 기부금 300억 원 중 지난해 12월 200억 원에 이어 나머지 100억원 기부금 증서를 전달했다.

>>> 사이버 포항 「영일만 친구」 운영 돌입



포항시는 8월 20일부터 각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사이버 포항 「영일만 친구」 운영에 들어갔다. 사이버 포항 「영일만 친구」는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포항에 연고를 가진 국내외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많은 네티즌이 방문하고 체험하여 포항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1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이 포털 사이트는 기존 포항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로그인인 가능한 통합인증 SSO(Single Sign ON)로 구축되어 있다.

>>> 오어사에서 영일만항까지 걸어보자



오어사에서 영일만항까지 순환등산로가 조성된다. 포항시는 증가하는 등산객의 안전관리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200리길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등산로는 7개 노선에 77km로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포항시가지 중심에 있는 양학동 부학산, 창포동 국기봉, 영일만항으로 연결하고, 남쪽으로는 양학동 부학산, 효곡동TP, 연일중명 소형산 옥녀봉, 운제산 오어사까지 연결한다. 시는 순환등산로의 원만한 동선확보와 시가지 관광을 위해 단절구간 연결교량 1개소와 전망대를 겸한 쉼터 6개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 포항시 테라노바 손길 곳곳에 뻗힌다

포항의 관문인 연일읍 유강리 유강터널 앞에 '관문 숲'이 조성된다. 포항시는 연일읍 유강리 주거지역과 철로변 사이의 완충녹지 405m구간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설계자와 시공업체 선정 및 기술적 내용 지원은 시 테라노바팀이 맡고, 사업시행은 '포항생명숲'에서 추진한다. 시는 9월 말까지 설계부문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해 전국단위의 조경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공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을 포함한 경북지역 조경업체가 공동으로 공모에 참가하도록 제한했다.

>>> 몸에 좋은 곤달비 기북에서 맛보세요



포항시 기북면이 내년부터 새로운 농외 소득원으로 떠오르는 곤달비 재배에 들어간다. 특히 지역에서 처음으로 곤달비를 재배하게 되는 기북면은 매년 열리는 산나물축제와 산이 깊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산채류 생산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 포항시농업기술센터는 8월 27일 기북면 탑정리 마을회관에서 산채재배농가 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곤달비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포항시의회보 제18호(2009여름호) 발간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생생한 의정활동을 담은 포항시의회보 제18호(2009여름호)를 8월 7일 제작·배부했다. 5대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정에서 처음 의정에 섰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다짐하며 노력하는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이 책자에 담겨 있다. 18개 콘텐츠로 구성된 이 책자에는 먼저 '의정포커스',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등 주요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 대내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의 활약상도 스케치했다. 또 지난 6월 23일부터 7일간 펼친 2009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감사성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수록했으며 포항발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물론, 언론 보도기사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

>>> 포항시의회, 2009 을지연습 훈련상황 참관



포항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일행은 8월 18일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2009 을지연습 참가기관을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포항남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및 포항해양경찰서 상황실, 시청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군사연습 상황 및 일일상황, 군 작전에 대한 종합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가위기관리 및 전시 대비 체제를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음료수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이만하면 해외연수 필요하죠!!



포항시의회가 해외연수와 관련, 보고서 작성을 통한 결과보고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민을 초청한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이례적인 일로 주목받았다.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보고회를 연 것은 포항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결과보고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8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의원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 출입기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중국 장가항 및 상해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이철구 총무경제위원장이 직접 나서 파워포인트로 연수내용을 브리핑하고, 참석자들과 연수성과 및 향후 연수방향 등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보고회는 외유성 논란 등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 여론을 무마시키고 해외연수가 시정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1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8월 21일 개최한 제1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28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8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1조222억 원보다 1,005억 원(9.83%) 증가한 1조1,227억 원으로 편성된 '포항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흥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억9,719만원, '경북 씨그랜드 사업지원' 2억원 등 총 11억 1,707만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포항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어 한승훈·이재진·정석준·권광호 의원이 차례로 나서 '제2의 영일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형사업이 실질적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안',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환경도시 건설',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사업 포항유치 방안'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긴급 생계비, 재산담보부 대출로 OK

- 신청자격 : 주택(전세자금 포함), 상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등 보유재산이 2억 원 이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담보할 재산이 있으면 가능
 - 대출금리 : 7%(정부 4%지원, 본인부담 3%)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으로 신청자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가능, 신용보증 추가대출가능
 -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상환
 - 대출신청 :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한,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
 - 신청기간 : 12월 9일까지
- [기타문의 :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129, 새마을금고연합회(1599-9000), 신탁중앙회(042-720-1311~2) 등]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실시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만성질환자 가정, 결혼이민자 및 산모신생아 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중 탈락자
 - 방 법 :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내 용 :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요구도에 맞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건강측정 및 맞춤형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보건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 [문의 : 남구보건소 270-4074, 북구보건소 270-4173]

>>>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연중 실시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내 용 : 전화로 예약접수하고 먼저 보건소에서 1차 상담 및 치매간이검사실시 후 이상자는 거점병원에서 2차~3차 정밀검진 실시, 2단계 정밀검사는 신경인지 검사 및 CT촬영, 혈액검사 등이며 무료로 실시함
- [문의 : 남구보건소 270-4074, 북구보건소 270-4172]

>>>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세요!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9월부터는 영유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제도로 시행된다. 아이사랑카드 도입으로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를 보육료를 결제하고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시는 9월 10일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납세자께서는 구청 또는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시 남구청 세무과(☎270-6241), 북구청 세무과(☎240-7241)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우송해 준다.

- 납부기간 : 9월16일 ~ 9월30일
 - 납세대상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소유자
 - 대상물건 : 주택(연간세액의 1/2),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 [기타문의 : 남구청270-6251, 북구청240-7251, 읍면동]

>>> 환경개선부담금 2009년 2기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년2회 부과된다. 9월 10일 2기분이 고지됐다.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주택, 공장 제외)이다.

[기타문의 : 남·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 확대 시행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이자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에서 근로능력이자 있어도 빈곤한 경우 중·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대상자 선정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시청 민생안정추진T/F팀 270-2922~3]

>>> 2009 행복나가게 나눔장터 개장

재사용 가능한 중고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고통을 아우르고, 수익금으로 소외계층돕기 성금과 장학금 조성을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일 시 : 9월28일(금) 09:00~16:00
- 장 소 : 포항종합경기장 주차장
- 부대행사 : 명사애장품 경매, 먹거리장터, 종이팩교환코너, 섹소폰공연, 댄스공연, 초대가수 공연 등
- 행사당일 포항MBC 특집생방송 예정(09:30~10:45), 종이팩 1kg을 가져오시는 분에게 휴지 또는 친환경비누로 교환

[기타문의 : 시청 청소과 270-3195]

>>> 꿈꾸는 녹색장난감 가게 개장

가정에서 쓰레기로 배출되는 장난감을 수거하고, 기증받아 재가공하여 저렴하게 판매·교환해 주는 장난감 가게가 개장했다.

- 장 소 : 중앙상가 실개천 (육거리 일품회집 앞)
- 운영시간 : 매주 월~토(09:00 ~ 20:30)
- 문 의 : 포항YMCA (246-1711~3)
- 오픈행사 겸 장난감 축제
 - 일 시 : 2009년 10월 9일 (오픈행사 : 오후 5시)
 - 장 소 : 중앙상가 실개천 일원(우체국 ~ 육거리 사이)
 - 행사내용 : 장난감체험, 인공로봇전시, 문화체험, 가수공연 등

>>> 추석 전·후 서민보호 특별 방법활동 전개

포항남·북부경찰서에서는 2009년 추석을 앞두고 9월 21일부터 10월 4일(14일간)까지 강·절도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의 증가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 아파트·빌라 및 편의점 등 범죄 취약개소에 대한 선제적·가시적 방법활동을 전개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와 함께 민생치안확보에 전력할 계획이다.

>>>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추진

포항남·북부경찰서에서는 서민치안·민생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9월 1일부터 10월 31일(2개월간)까지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행락철·추석절 전후 유희비 목적 빈집털이, 금융기관·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또는 주변 치기배, 수확기 농·수·축산물 절도 등 생활권 주변 강·절도범, 금은방·전당포 등 절도 수요를 촉발시키는 직업적 장물범, 영세상인 갈취, 지역이권 개입 등 지역토착 갈취·조직폭력배 등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 또는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 학교폭력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도 벌인다.

>>> 청소년수련관 하반기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9월15일 ~ 9월 28일까지(선착순접수)
 - 교육기간 : 9월29일 ~ 12월 19일까지(12주간)
 - 수 강 료 : 청소년15,000원(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녀 전액감면
 - 대 상 자 : 우리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 [기타문의 : 청소년수련관 270-4771]

>>> 10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왕초보 등(9개과정 9개반)
 - 교육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기 이수한 교육과정 수강신청불가)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 시청교육장 강의실(문화복지동 2층) : 270-5825
 - 남구교육장 1, 2강의실(종합운동장 2층) : 270-5823
 - 북구교육장(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 270-5824
 - 신청기간 : 9월28(월) 09:00부터 선착순
 - 인터넷접수방법 (사전편집 100%, 기타과정은 접수인원의 50%)은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 후 →아이디란에 ipohang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아이디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최근 강좌→수강신청 가능한 강좌명 선택
- [기타문의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270-2304)]

>>> 2009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집

청소년 시책의 실행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해 포항시 청소년 정책 과제의 설정·추진·점검과 각종 청소년 정책의제 토론회 및 실천의제에 대한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참여위원을 모집한다.

- 지원자격 : 포항에 거주거나 재학 청소년(중·고·대학생)
- 선발인원 : 15명 정도
- 접수기간 : 9월10(일)목 ~ 9월28(월) 18:00
- 위촉기간 : 2009년 10월 ~ 2010년 12월
- 접수문의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청소년복지담당 270-3052/5808 (기타 내역은 포항시 홈페이지 참조)
- 혜택내용 : 시장 명의 위촉장 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기회 우선 부여 등

>>> 해군 해병대 장교 부사관 병 모집 안내

- 108기 사관후보생 : 2009. 10. 26 ~ 11. 13
 - 예비 장교후보생 : 2009. 10월말 또는 11월
 - ROTC : 2009. 9. 7 (월) ~ 10. 5 (월)
 - 부사관(남) : 해군 9. 1 ~ 24(제225기), 해병대 매월 1~15일
 - 병(유급지원) : 해군·해병 매월 1일~15일
 - 인터넷접수 : 해군홈페이지(www.navy.mil.kr)
- [기타문의 : 해군·해병 대구경북/포항지구모병관 290-4646]

>>> 충무훈련에 참여합니다!

전시대비 종합훈련인 '2009년도 하반기 충무훈련'이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때 병력과 물자를 대단위로 불시에 동원하게 되니 충무훈련에 적극 참여합니다.

- 훈련기간 : 2009. 10. 12 ~ 10. 15
- 훈련지역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전 지역
- 훈련대상 :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 훈련방법 : 충무훈련소집통지서상 명시된 일시 및 지정된 장소로 집결하여 4시간 소집점검 훈련 실시
- 지 참 물 : 충무훈련소집통지서, 신분증,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

[기타문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053)607-6261~7,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내세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이다. 시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773건에 대해 200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 노력을 유도하고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 포항해양스포츠클럽 회원모집

포항해양스포츠클럽은 학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원을 모집한다.

- 운영기간 : 2009년 7월1일 ~ 12월31일
- 종 목 : 5개 종목(조정, 카누, 윈드서핑, 제트스키, 수영)
- 교육기간 : 매월 8회(매주 토, 일요일)
- 접 수 처 : 포항해양스포츠클럽(282-2223, FAX 282-2223)

장학기금 마련 위해 포항시 직장인 밴드 다 모였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300억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포항에 거주하는 직장인 밴드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축제를 열었다. '제3회 포항시 직장인밴드 락페스티벌'이 9월 12일 오후 7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7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 뜨거운 열기를 뽐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장학기금 모금 특별콘서트로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해주었다.

이날 축제는 POSCO직원들로 구성된 밴드 '다락'이 7080세대의 명곡인 Steel heart의 「She's gone」 등 3곡을 연주하며 시작되었다. 이어 여러 직장인들이 결성한 밴드 'M3'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등 4곡을 연주했다. 1부의 열기를 이은 2부는 '원하트'가 문을 열었다. 「진달래꽃」 등 3곡을 선보였고, 포항시 공무원 밴드 '포피플'이 대성의 「날봐 귀순」 등 3곡을 연주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포항의 스트리트 댄스를 주도하고 있는 댄스팀 '만장크루'가 찬조출연해 행사를 빛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포피플에서 베이스를 담당하는 김동진씨(시청 자치행정과)는 "포항의 동호인 밴드들이 평소 같고 뒀은 기량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특별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포항시의 300억 원 장학기금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장학기금 모금 특별 콘서트로 열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뜻이 있는 사람은 장학기금 모금통에 성의를 표했다. 상반기 모금액 등 지금까지 모금액 300여만 원은 9월 21일 장학기금으로 포항시 장학회에 기탁했다.

>>> 개업 화환 대신 '포항쌀'로 희망 전달



포항 상도동에 소재한 '담경' 일식당 손용기 대표는 8월31일 포항시푸드마켓에 20kg 쌀 50포를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쌀은 최근 포항시의 '포항쌀' 팔아주기에 아이디어를 얻은 손 대표가 개업 시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보내달라고 해서 모은 것이다. 손 대표는 "축하 화환도 좋지만 기왕이면 '포항쌀'도 팔아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포항시 장학기금 기탁 줄이어

포스콘 포항동우회(회장 김상준)는 9월 13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장학기금 2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종환 영남자동차학원장이 8월 15일 포항시 승격 60주년 행사장에서 가정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장학기금 500만원을 포항시장학회에 전달했다.

또 포항청십자약품 박윤규 대표가 8월 26일 포항시를 방문해 미래의 글로벌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주)청십자약품은 1974년 포항시 상원동에서 창립하여 대구 등 4개 지사를 두고 있는 약품부분 전국 매출 6위 기업으로 현재 흥해읍 대련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장학기금은 회사 창립 35주년 기념행사를 겸소하게 개최하고 행사경비 절약 및 화환 대신 쌀, 라면 등을 기탁 받아 300억 원 장학기금조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학생대표 최지수) 학생들도 8월 27일 실시 일반으로 모은 60만원을 포항시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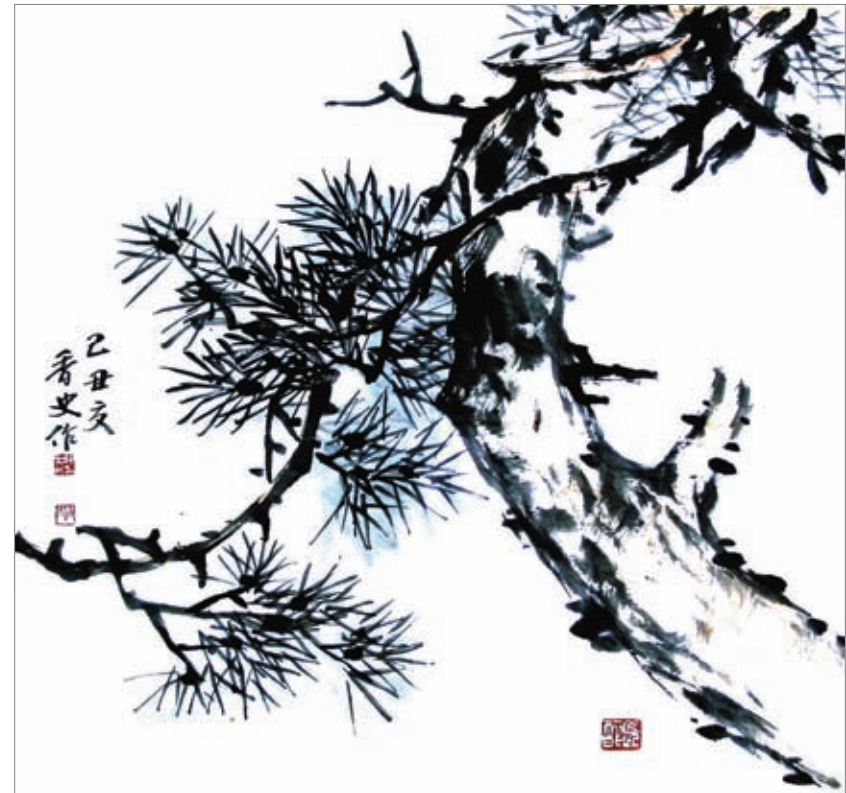
포항시인터넷방송(PV)에서 포항을 한눈에!

환동해경제권 국제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의 역동적인 모습과 포항시정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tv.ipohang.org

시청홈페이지(www.ipohang.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소나무 | 크기 | 70X70cm | 재료 | 한지, 먹



손성범 雅號 : 香史, 海天樓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운영 / 경상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운영 / 대구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운영 / 영일만 서예대전 초대작가·심사·운영 / 경북 문인회합회 회장 / 한국 미술협회 문인회분과 이사

대교약졸 大巧若拙

문인화는 조선시대부터 사대부를 비롯한 벼슬하지 않는 선비와 시인 묵객들이 학문적 교양과 감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린 그림이다. 화려하고 정교한 기법의 화원화기들의 그림과는 달리, 문인화기들은 문기(文氣)와 서권기(書卷氣)가 깃든 간일하고 소박한 수묵화법을 진작시켰으며 시화일치(詩畫一致), 서화일치(書畫一致)의 경지와 시·서·화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3절(三絶)을 지향했다.

그러기에 문인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려진 대상의 내용이나 형식, 필력, 묵색 이외에도 작품 속의 비유와 상징, 암시등 화가가 화면 밖에서 전달하려는 화외지의(畫外之意)를 읽어야 한다.

예로부터 소나무를 군자지수(君子之樹)라 하고 잣나무를 현인지목(賢人之木)이라 했다. 향사 손성범은 소나무의 외형을 통해 군자(君子)의 문사적 취향과 품격을 일괄휘지하듯 단순하고 간결한 필치로, 전통적 필의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선보인다.

대교약졸(大巧若拙), 무릇 재주를 가진 사람은 그 재주를 자랑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서툰 것처럼 보인다. 향사의 소나무는 마치 대교약졸의 그 방법정신을 닮았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